

한국어 ‘버리다’와 중국어 ‘掉’의 양태 의미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대조 분석

고영*

목 차

1. 서론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1) 한국어 보조용언 ‘버리다’의 선행연구
 - 2) 중국어 결과보어 ‘掉’의 선행연구
 - 3) 보조용언 ‘버리다’와 결과보어 ‘掉’의 대조 연구 현황 및 한계
3. 보조용언 ‘버리다’와 결과보어 ‘掉’ 양태 의미의 대조 연구
 - 1) 보조용언 ‘버리다’의 양태 의미
 - 2) 결과보어 ‘掉’의 양태 의미
 - 3) 보조용언 ‘버리다’와 결과보어 ‘掉’ 양태 의미의 대조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어 보조용언 ‘버리다’와 중국어 결과보어 ‘掉’의 양태 의미를 ‘감정 강화’라는 공통 분석틀로 설정하여 대조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중립적 해석 및 이분법적 접근(긍정·부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버리다’의 양태 의미는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는 기능, 즉 감정의 극성 자체보다 감정 강도의 부각과 관련된 ‘감정 강화’로 재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두 언어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인지 기제를 전제로 하여 구조적·기능적 유사성을 지닌 ‘掉’와의 대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표현 모두 ‘감정 강화’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버리다’는 높은 문법화 정도와 주관적 태도 표출에 집중되는 반면, ‘掉’는 문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생

맥 의존성이 더 강하고 감정 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 분석을 통해 두 언어의 감정 표현에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조명하였다.

키워드: 보조용언 ‘버리다’, 결과보어 ‘掉’, 인지의미론, 감정 강화, 대조 분석

1. 서론

본고는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한국어 보조용언¹⁾ ‘버리다’와 중국어 결과보어 ‘掉’의 양태 의미를 대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버리다’의 양태 의미를 ‘감정 강화’라는 틀에서 재정의하고, 이러한 의미가 ‘掉’에서도 유사한 인지적 기반에서 실현되는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두 언어 형식에서 ‘감정 강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실제 예문, 2016년판 중국어 BCC 말뭉치²⁾ 및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문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준거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남기심·고영근·유현경(2019)³⁾의 양태 범주를 참조한다. 양태는 크게 명제 양태와 사건 양태로 구분되며, 전자는 명제의 사실성(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판단·태도와 증거 표지를, 후자는 잠재적 사건의 실현과 관련된 의무·허가, 능력·의지를 가리킨다. 본고는 이러한 범주 가운데 평가적·태도적 양태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⁴⁾ 여기서 ‘양태 의미’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

1) 본고에서는 ‘버리다’를 ‘보조용언’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보조동사’로 사용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용언’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2) BCC 말뭉치는 北京語言大學 언어지능연구원(語言智能研究院)에서 구축한 대규모 중국어 코퍼스로서, 현대 중국어의 실제 사용 자료를 수집·정제하여 언어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고의 일부 중국어 예문은 2016년판 BCC Balanced Corpus를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3) 남기심·고영근·유현경,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9.

4) 본고에서 말하는 ‘감정 양태’는 남기심·고영근·유현경(2019)의 양태 범주 중 화자의 평

태도로 이해하며, '감정 강화'는 그 감정적 태도의 강도 상승을 가리킨다
 기존 연구에서는 '버리다'의 양태 의미를 주로 '부담의 제거'나 '후련함'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 '기대에 어긋남'이나 '섭섭함'과 같은 부정적 측면으로 설명해 왔다. 이는 예문(1)에서 확인된다.

(1) 수박을 다 먹어 버렸다.

예문(1)은 기존 연구들에서 '버리다'의 양태 의미를 분석할 때 흔히 제시된 대표 사례이다. 그러나 이 문장 후속 발화인 'ㄱ. 어떡하지, 손님이 곧 오시는 데. 혹은 ㄴ. 진짜? 그럼 정리하기 편하겠네!'를 덧붙이면 동일한 발화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서로 다른 화자의 감정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주류 설명으로는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다. 유사한 양상은 중국어 결과보어 '掉'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용언 '버리다'와 결과보어 '掉'의 대조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주로 두 표현의 통사적·의미적 기능에 집중해 왔다. 그중 전원홍(2013)⁵⁾은 '버리다'와 '掉'가 모두 술어 뒤에 결합하여 화자의 기대나 의도에서 벗어나는 양태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하였다.

(2) 가. 2000원짜리 참외 3개 중 1개는 완전히 썩어 버렸다.

나. 三个两千元的香瓜, 有一个完全烂掉了。

전원홍(2013:63)

전원홍(2013)에 따르면, 예문(2가)에서 화자는 참외가 썩지 않기를 바랐으

가·태도와 관련된 양상을 작업상 묶어 지칭한 용어이다. 인식적·증거적 양태나 의무·허가 등의 의미를 직접 표지하는 용법은 제외하고, 사건 결과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태도와 그 강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5) 전원홍, 「논문(論文) : 한어(韓語) 'V+ 버리다'여(興)한어(漢語) 'V+ 도(掉)'적(的) 비교(比較)」, 『中國學論叢』 제39권, 중국학연구소, 2013 (39) : 56-66.

나 ‘씩다’라는 사실을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로 분석하였다. 또한 예문(2가)를 결과보어 ‘掉’가 쓰인 중국어 예문(2나)로 번역할 경우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결국 두 표현은 표면적으로 ‘기대에 어긋남’이라는 양태 의미를 공유하며 이는 예문(1)에서 드러난 기존 연구의 이분법적 한계가 대조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러한 기존 설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고는 ‘감정 강화’라는 통합 틀을 도입하여 두 형식의 공통 인지 기제와 실현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버리다’와 ‘掉’에 대한 개별적 의미 기술을 넘어서, ‘감정 강화’라는 단일한 인지의미론적 분석틀 아래 두 표현을 체계적으로 대조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법 범주와 문법화 수준을 지닌 두 형식이 공통된 감정 양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과 그 실현 양상이 어떻게 상이하게 구현되는지를 인지의미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공통 기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두 표현의 감정 강화 실현 방식과 강도에 나타나는 체계적 차이를 대조함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 감정 표현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조명하는 것을 본고의 주요한 의의로 삼는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 한국어 보조용언 ‘버리다’의 선행연구

보조용언 ‘버리다’에 대한 선행연구는 통사적 구조, 의미 기능, 화자의 인식 과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상의미(완료·종결)와 더불어 화자의 감정을 반영하는 양태 의미에 주목하였다.

손세모달(1994)⁶⁾은 ‘버리다’를 ‘완전한 종결’로 보아 감정을 내포하지 않는

6) 손세모달, 「보조 용언의 의미에 관한 연구-두다/놓다, 버리다, 내다를 중심으로-」, 『한글』 제223권, 한글학회, 1994.

구조적 장치로 규정하고, 장미라(2006)⁷⁾는 상 의미에 기반한 부가적 작용으로 파악하였다. 두 연구는 감정 기능을 담화 맥락에 의해 부가되는 화용적 층위로 본다는 점에서 견해가 합치한다. 반면 박선옥(2006)⁸⁾은 '버리다'가 단순한 상 의미(완료)를 넘어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양태 의미가 문법적으로 정식화되고 있음을 강조하여, 감정 표현을 화용적 층위에 한정된 기준 견해와 차별화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버리다'의 문법적 위상 정립에 기여해 왔으나, 양태 의미가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았다. 한편 심상도(1994)⁹⁾는 '버리다' 구문이 단순히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한 화자의 후회·아쉬움·안타까움 등 감정을 담은 화용적 양태 의미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조미희(2013)¹⁰⁾는 통사적 실험을 통해 '버리다'가 상적 성격의 보조용언 가운데 가장 높은 주관성과 화자 중심성을 나타내며, 단순한 동작 기술을 넘어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반영된 문법적 구성임을 보여 주었다. 이금희(2021)¹¹⁾는 이러한 주관성 논의를 확장하여 '버리다'의 감정적 기능을 '감정 양태(화자의 평가가 반영된 양태 의미)'로 범주화하고 후회·아쉬움뿐 아니라 해방감·통쾌함 등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나타내는 이중적 양태 의미 구조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긍정·부정' 이분법만으로는 예문(1)과 같은 문장에서 맥락에 따라 교차하는 복합적 감정의 세부 층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적 근거로서 안신혜(2016)¹²⁾는 보조용

7) 장미라, 「한국어 보조 용언의 상적, 양태적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 -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 말다, 치우를 중심으로-」, 『배달말』 제38권, 배달말학회, 2006.

8) 박선옥, 「補助動詞 '버리다'와 '치우다'가 쓰인 구문에 대한 統詞論的·意味論的 연구」, 『어문연구』 제34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9) 심상도, 「補助動詞의 樣態的意味」, 『明知語文學』 제21권, 명지어문학회, 1994.

10) 조미희, 「국어 보조동사 의미의 주관화: '-어 놓다, -어 두다, -어 버리다, -어 치우다' 쌍을 중심으로」, 『형태론』 제15권, 도서출판 박이정, 2013.

11) 이금희, 「감정양태 설정과 감정양태 표현 양상-보조용언 구성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제1권, 담화·인지언어학회, 2021.

12) 안신혜, 「보조용언의 문법화 양상 -가다, 오다, 두다, 버리다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6권, 겨레어문학회, 2016.

언 ‘버리다’가 상 의미와 양태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며, 두 의미가 통사 구조 내에서 통합적으로 기능하고, 양태 의미가 담화 해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통사 구조에 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이철우(2018)¹³⁾는 ‘버리다’의 원형 의미인 ‘물리적 제거’가 ‘회복 불가능’이라는 인지적 틀을 통해 상 의미(완료)로 확장된 후, 화자의 감정적 반응이 개입된 양태 의미로 변화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의미 전이를 ‘환유적 의미확대’로 규정하며, 심리적 투영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 문법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해당 논의에서는 의미 확장 경로에 대한 통찰은 설득력이 크지만, ‘회귀 불가’와 화자 감정 반응을 매개하는 인지 메커니즘은 간략히 다루는 데 그친다. 이에 본고는 이철우(2018)의 환유 기반 인지의미론적 설명을 계승하되, Langacker(1990)의 주관화(subjectification)¹⁴⁾와 Talmy(2000)의 힘역학(force dynamics)¹⁵⁾을 분석틀로 도입한다. 여기서 주관화는 의미 구성에서 화자의 인지적 시점과 감정적 태도가 전경화되는 과정을 가리키고, 힘역학은 사건 결과를 둘러싼 내적 힘(저항·해소·극복)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인지 모형을 뜻한다. 이 두 틀을 통해 의미 전이의 인지적 동력을 감정 강화의 기제로 정식화함으로써, 동일 형식에서 맥락에 따라 상반된 태도가 산출되는 원리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버리다’의 양태 의미를 개별 용례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결과 전경화¹⁶⁾를 통한 감정 강

13) 이철우, 「보조용언 ‘버리다’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해석」, 『人文研究』 제84권, 인문과학연구소, 2018.

14) Langacker(1990)의 주관화(subjectification) 이론은 언어적 의미가 객관 세계의 단순 서술을 넘어 화자의 인지적 시점과 해석 과정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발달함을 설명한다. 주관화란 의미 구성 과정에서 화자의 주관성이 언어 표현에 점진적으로 부각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15) Talmy(2000)의 힘역학(force dynamics) 모형은 물리적 힘의 작용(밀기·당기기)과 저항·극복·방해·도움 등의 개념 체계에 기반하여 언어적 의미를 구조화하는 인지의미론적 분석 틀이다. 이 이론은 물리적 사건의 분석을 넘어 화자의 심리·정서 상태를 ‘내적 힘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16) 전경화는 여러 정보 가운데 특정 요소가 인지적·담화적으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본고에서는 사건의 결과나 화자의 평가 등이 이렇게 부각되

도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체계화하며 이를 후속 장에서 중국어 '掉'과의 대조 분석을 위한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2) 중국어 결과보어 '掉'의 선행연구

현대 중국어에서 '掉'는 동사의 뒤에 위치하여 동작이 완료된 이후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결과보어로, 사라짐, 소멸, 이동, 분리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V+掉' 구조는 단순한 동작 완료 표지를 넘어 담화 맥락에서 화자의 심리적 반응이나 감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양태 의미로 확장되어 활용된다.

'掉'에 관한 초기 연구는 '掉'의 결과보어로서의 지위, 결합 의무성, 그리고 완료·결과(실현·방향성) 표지를 중심으로 그 문법적 제약을 정립하였다(呂叔湘 1980; 劉月華 1983)¹⁷⁾. 이어 朴奎容(2000)¹⁸⁾은 '掉'가 '+소실·소실 유발' 의미 특성을 지닌 자립 활용동사(自立活用動詞)¹⁹⁾와 선택적으로 결합함을 지적하였고, 이때 '掉' 자체는 감정을 내포하지 않는 표지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掉'의 결합 특성과 문법적 지위를 규명하는 토대를 마련했으나, 양태 의미에 대한 내재적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더해, 앞선 통사적 정립을 바탕으로 '掉'의 구조 변화와 의미 일반화를 설명하려는 논의도 이어졌다. 吳福祥(1999)²⁰⁾은 고대 연동구조가 'V+掉' 구성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통사 재분석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사적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이후에는 인지 일반화에 대한 설명이 시도되었

어 해석의 중심 기준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설명하는 분석 개념으로 사용한다.

17)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1980.

劉月華, 『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1983.

18) 朴奎容, 「談'V 掉'中'掉'的意義」, 『漢語學習』 第5期, 2000.

19) 자립 활용동사란 의미적·문법적으로 완결성을 갖추어 단독으로 문장 내 술어로 기능할 수 있는 동사를 의미한다.

20) 吳福祥, 『試論現代漢語動補結構的來源』,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다. 이에 따라 曹晋(2009)²¹⁾은 인지언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적 탈리(脫離) 개념이 추상적 결과 표현으로 일반화되는 경로를 분석한다. 나아가, 최근에는 ‘掉’의 변화 경로와 기능이 공시적·통시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Jing, Gaowa·Liu, Meichun(2023)²²⁾은 ‘掉’가 실의 동사(實意動詞)²³⁾에서 결과보어로 문법화되었고, 의미가 ‘공간적 이동·탈리(脫離)’에서 ‘사건의 완결(事件的完結)’을 거쳐 ‘상태 달성(狀態達成)’으로 확장되어 다기능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 남부 방언과 교차 언어(한국어 ‘버리다’, 일본어 ‘しまう’) 비교를 통해 ‘제거류 동사’에서 ‘완결 표지’로 이어지는 경로가 재현 가능함을 보이고, ‘공간 영역에서 시간 영역으로의’ 인지적 사상을 설명한다. 이러한 최신 연구는 본고에서 논의하는 ‘감정 강화’메커니즘(완결·불가역성²⁴⁾에서 화자 감정으로)의 설명 토대를 제공한다.

한편, 담화 맥락에서 ‘掉’의 양태 의미 발현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沈家煊(1999)²⁵⁾은 결과보어의 공간적 은유에서 추상적 의미로의 확장 경로를 제시하며, ‘掉’가 ‘떨어지다’라는 공간 동작에서 ‘기억에서 사라지다(忘掉)’, ‘기능을 상실하다(坏掉)’ 등 추상적 결과 영역으로 발전하는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劉焱(2007)²⁶⁾은 ‘掉’의 다의성을 ‘객체 분

21) 曹晋, 「‘V掉’의語法化」, 『黔南民族師範學院學報』第2期, 2009.

22) Jing, Gaowa·Liu, Mei-Chun, 「The Multifunctionality of Mandarin Diào 掉」, 『Chinese Language and Discourse』 제14권 제1호,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23.

23) 王力(1943)에서는 중국 전통 문법 이론에서 ‘실의 동사(實意動詞)’란 구체적인 어휘 의미를 지니며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서술어(述語)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사를 지칭한다. 이는 한국어 문법에서의 ‘자립 활용 동사’ 개념과 개념적으로 상통한다고 보았다.

24) 완결(完結)은 사건이 결과 지점에 도달하여 종결성이 확보된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적 기술어이다. 상 표지로서의 ‘완료’와 구분되며, 중국어 ‘완결(完結)’ 또는 ‘終結’(결과 상태에의 도달)과 상통한다.

불가역성(不可逆性)은 분리·소실·상태 전환 도식에서 비롯되어 해석상 환원이 곤란한 것으로 해석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V+掉’가 전경화하는 결과 상태의 안정성과 고착성을 요약하는 개념이며 극성(극정·부정)은 문맥에 의해 사후 귀속된다.

25) 沈家煊, 「轉指和轉喻」, 『當代語言學』第1期, 1999.

26) 劉焱, 「‘掉’의語義類型與‘掉’의虛化」, 『中國語文』第2期, 2007.

리(客體分離)·'객체 소실(客體消失)·'행위 종결·상태 실현(行爲終結·狀態實現)'의 세 범주로 체계화하여, 물리적 결과에서 심리·기능 영역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였다. 또한 謝翠鳳(2008)²⁷⁾은 '掉'가 '기억의 소실'이나 '부정적 사건의 완료' 맥락에서 화자의 주관적 태도 표지로 기능하며 부정적 정서와의 결부가 두드러짐을 보였다. 다만 논의가 부정적 맥락에 편중되어, 동일 형식이 맥락에 따라 해방감·만족감 등 상반된 평가로 실현될 가능성과 그 발현 메커니즘(인지적 처리·담화 제약)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는 '掉'의 결과 의미를 감정의 극성 자체가 아니라 감정 강도의 전경화, 즉 '감정 강화'와 관련된 양태적 기능으로 재해석하고 그 작동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3) 보조용언 '버리다'와 결과보어 '掉'의 대조 연구 현황 및 한계

기존 대조 연구로는 이명화(2010), 전원홍(2013), 한경숙(2019), 평교교(2023)²⁸⁾ 등 있다. 이명화(2010)와 한경숙(2019)은 시기상 차이는 있으나 모두 통사적 관점에서 두 표현의 종결성에 주목하였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두 표현이 동작의 종결성을 표시하는 기능적 유사성을 확인하였으면 '버리다'가 '의지성'을, '掉'가 '객관적 결과성'을 각각 강조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달리, 전원홍(2013)과 평교교(2023)는 통사 중심 범위를 확장하여 '버리다'와 '掉'를 대상으로 통사적 기능은 물론 화용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고찰하였다.

27) 謝翠鳳, 「現代漢語補語 '掉'研究」,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28) 전원홍, 「논문(論文) : 한어(韓語) 'V+ 버리다'여(與)한어(漢語) 'V+ 掉(掉)적(的) 비교(比較)」, 『中國學論叢』 제39권, 중국학연구소, 2013.

이명화, 「한국어 '-어 버리다'와 중국어 '掉'의 대조 연구」, 『동아인문학』 제18권, 동아인문학회, 2010.

한경숙, 「중국어 V+掉, A+掉 구조 중 결과보어 掉의 상 자질 중한 대조연구」, 『東洋學』 제111권, 東洋學研究院, 2019.

평교교, 「한국어 종설상 보조동사와 중국어 대응 표현 대조 연구: '버리다', '치우다', '내다」,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2023.

전원홍(2013)은 ‘버리다’와 ‘掉’는 모두 화자의 ‘기대에 어긋남’이라는 양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팽교교(2023)는 양자가 ‘부담 제거·시원함·성취감’ 또는 ‘후회·아쉬움·서운함’의 양태 의미를 띤다고 논의하였다. 두 연구는 ‘버리다’와 ‘掉’의 양태 의미를 밝히는 데 기여했으나, 양태 의미에 대한 논의가 각 논문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져 심층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양태 의미를 다루는 대목에서도 두 논문은 감정적 이분법의 틀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팽교교(2023)가 제시한 한·중 예문인 ‘나 같으면 이 공장 당장에 팔아 버렸을 테니까(如果是我的話, 這工厂我會立馬賣掉)’는 이를 ‘부담 제거’등의 긍정적 감정으로 범주화한 서술만으로는 화자의 복합적 감정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화자의 ‘인지적 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리다’와 ‘掉’는 통사적·의미적 유사성을 보이거나 서로 다른 언어 체계에 속함에도 유사한 양태 의미를 공유한다는 점을 본고에서도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양태 의미를 공유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감정 강화’를 공통 인지의미론적 분석틀로 설정하고, 두 표현의 양태 의미가 단일 메커니즘에 따라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대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기존 연구는 ‘버리다’의 양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가?
2. ‘버리다’의 양태 의미를 ‘감정 강화’의 틀로 재정의할 경우, 중국어 ‘掉’ 역시 유사한 의미를 보이며 그 인지적 실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3. 보조용언 '버리다'와 결과보어 '掉' 양태 의미의 대조 연구

1) 보조용언 '버리다'의 양태 의미

(1) 보조용언 '버리다'의 중립적 해석 재고

손세모돌(1994)는 보조용언 '버리다'의 양태 의미를 문맥에 따라 나타내고 그 특성을 중립적이라고 규정하였다.

(3) 가. 이슬이 아침해에 녹듯 아침이 되어 녹아 버리면 (ㄱ. 어찌나 겁을
냈죠. / ㄴ. 좋겠다.)

나. 김의원이 그 자료를 모두 윤희에게 주어 버렸다. (ㄱ. 큰일이났다.
/ ㄴ. 다행이었다.)

손세모돌(1994 : 120)

다. 김의원이 그 자료를 모두 윤희에게 줬다. (ㄱ. 큰일이났다. / ㄴ.
다행이었다.)²⁹⁾

(3가, 나)는 손세모돌(1994)에서 제시한 예문으로 후행절 ㄱ과 ㄴ의 문맥에 따라 화자의 감정적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차이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화자의 주목 대상에 따른 해석 변이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상은 단순한 의미 병치가 아니라 화자의 시점 선택과 주의 배분이라는 인지 과정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Langacker(1990)의 주관화 이론에 비추어, 이는 보조용언 '버리다'가 문맥 정보를 매개로 사건 결과의 비

29) 예문 (3다)는 손세모돌(1994)의 (3나) 예문에서 보조용언 '버리다'를 생략하여 본고에서 변형 구성한 것이다.

가역성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화자의 감정적 태도를 강조하는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버리다’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넘어 화자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감정적 평가를 촉발하여 주관적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게 하는 장치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손세모돌(1994)의 주장대로 ‘버리다’의 양태 의미가 문맥에 따라 해석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중립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화자의 감정적 개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생각하며, 본고는 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예문(3다)는 ‘버리다’ 사용 여부를 제외하면 (3나)와 동일하다. 그러나 두 예문은 ‘중립적’ 해석만으로는 화자의 감정 개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두 예문은 화자의 감정적 태도 표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버리다’가 사용된 (3나)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화자의 감정이 보다 명확하게 표출된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감정 강화’로 본다. 즉, 이 같은 감정 강화는 ‘버리다’가 사용된 (3나)에서 사건의 종결성과 결과적 영향을 부각시켜 화자의 감정적 개입을 유발하는 데 반해, (3다)에서는 ‘버리다’가 생략되면서 사건이 단순히 서사적으로 제시될 뿐이며, 이로 인해 감정적 강조 효과가 결여된다. 이는 단순한 문맥 효과가 아니라 ‘버리다’의 본래 의미인 ‘제거’와 ‘종결’의 의미적 속성에서 비롯된 감정적 유발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는 사건의 완료를 강조하면서 화자의 감정을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중립적’ 해석은 단순히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이 아닌, ‘버리다’는 어휘 고유의 의미적 속성을 바탕으로 화자의 감정적 태도를 능동적으로 유도·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립적이라는 규정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또한 ‘버리다’의 양태 의미에 대한 기존 논의는 중립적 해석뿐만 아니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과 연관된 해석도 포함되어 왔다. 이어서 구체적인 예문을 바탕으로 기존 해석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버리다’의 양태 의미에 대한 보다 정교한 해석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보조용언 '버리다'의 긍정·부정 범주의 문제점

- (4) 가. 그는 아이를 버렸다.
나. 철수가 어제 떠나 버렸다.

沈相度(1994 : 10)

- (5) 가. 오늘은 영수가 청소 당번이다.
그런데 영수는 벌써 집에 가 버렸다.

이철우(2018 : 4)

심상도(1994)는 보조용언 '버리다'의 화자 중심적 의미가 본동사 '버리다'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예문(4)는 '버리다'가 지니는 부정적 감정, 즉 '섭섭함'을 드러내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예문(4가)를 살펴보면 본동사 '버리다'는 '돌보지 않다' 또는 '외면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며, 단절이나 포기 의 감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 한편 예문(4나)의 경우 철수의 떠남 이후 화자가 느끼는 섭섭함이 언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버리다'는 본동사와 보조용언으로 모두 기능하지만 보조용언으로서 사용될 때조차 그 원형 의미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 의미 확장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형 의미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한 분석의 범위를 제약할 수 있다. 심상도(1994)의 분석은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해당 예문에 대한 유일한 해석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즉, '버리다'의 본래 의미에서 유래한 부정적 감정만으로는, 다양한 맥락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복합적 감정을 일관되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화자가 철수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그가 떠난 사실을 '부담의 해소'로 인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버리다'의 종결성 부각은 해당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두기 또는 해방감이 언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Talmy(2000)의 '힘역학' 모델에서처럼, 상충하는 심리적 힘 속에서 화자의 감정이 문맥에 따라 달

라지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해석과 부합한다. 이처럼 감정 표현이 단일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맥락 정보가 감정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본고는 이철우(2018)가 제시한 예문 (5)를 살펴본다. 예문(4)에 비해 (5)는 선행절이 표면화되어 화자의 의도가 명료하게 전달된다. 이는 선행절에서 ‘청소 당번’이라는 의무 정보가 제시될 때, ‘가 버렸다’가 단순 완료를 넘어 의무 회피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불만·실망을 더 강하게 외현화하는 종결성 기반의 표현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버리다’의 강한 종결 지향성은 당번이라는 의무가 더 이상 수행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인식될 때는 맥락과 결합하여 화자의 부정적 감정(불만·실망)을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전경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본고는 보조용언 ‘버리다’가 화자의 감정을 전경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감정적 표현이 ‘버리다’의 어휘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감정을 단순히 외현화하거나 강화하는 장치에 불과한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 (6) 가. 오늘은 영수가 청소 당번이다.
그런데 영수는 벌써 집에 갔다.³⁰⁾

만약(5)의 ‘가 버렸다’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부정적 감정이 보조용언 ‘버리다’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면, 이 요소가 생략되면 해당 감정은 약화되거나 소실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예문(6)에서 확인되듯 ‘버리다’가 생략된 ‘집에 갔다’는 표현에서도 화자의 감정을 여전히 유추될 수 있다. 이는 선행절에 명시된 ‘청소 당번’이라는 의무 정보가 청자로 하여금 ‘의무 위반³¹⁾’이라는 상황

30) 예문(6)은 예문(5)에서 ‘버리다’를 생략하여 변형한 것으로, 원문 예문은 이철우(2018)에서 인용한 것이다.

31) 이는 특정 상황에서 기대되는 사회적 또는 담화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로, 화자의 심리적 평가 및 정서 유발의 인지적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을 인식하게 하고, 주의 초점 이동과 평가 추론이라는 인지적 작용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유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맥 만으로도 감정 유추가 가능하지만, '버리다'는 그러한 감정을 더욱 뚜렷이 외현화하는 촉진 장치로 기능한다. 따라서 '버리다'는 화자의 감정을 자체적으로 형성하기보다는, 문맥을 통해 활성화된 감정 상태를 언어적으로 부각시키는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문(6)을 통해 문맥에 따라 유추되는 화자의 감정이 '버리다'에 의해 더욱 명시적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환갑·박선옥(2000)³²⁾의 예문(7)을 중심으로 보조용언 '버리다'의 양태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7) 가. 영희가 꽃병을 썼다.

나. 영희가 꽃병을 깨 버렸다.

成煥甲, 朴仙玉(2000 : 19)

성환갑·박선옥(2000)은 예문(7)의 두 문장이 표면적으로는 유사성을 지니나, 양태적 차원에서는 화자의 태도 및 감정적 반응이 상이하게 구현된다고 지적하였다. (7가)에서는 화자가 영희가 꽃병을 썼다는 사실을 단순히 서술할 뿐, 그 결과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언어 형식상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7나)에서는 '버리다'의 개입으로 인해 화자의 내적 반응이 언어적으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보조용언 '버리다'의 양태 의미는 단일 문장만으로 정확히 해석하기에는 인지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문장의 전후 맥락과 화자의 심리적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의미 구성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화자의 감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예문(7)에 상이한 후행절을 결합하여 구성한 예문(8)을 분석함으로써, '버리다'의 양태 의미가 어떤 맥락 요인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지를 인지의미론적 관

32) 성환갑·박선옥, 「國語 補助動詞의 意味 研究: '-어 가다/오다/내다/버리다'를 대상으로」, 『人文學研究』 제30권, 인문과학연구, 2000.

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8) 가. 영희가 꽃병을 깬다. (ㄱ. 그 때 돈을 많이 주고 샀다. / ㄴ. 보기 싫었던 꽃병인데 깨뜨렸다.)

나. 영희가 꽃병을 깨 버렸다.(ㄱ. 그 때 돈을 많이 주고 샀다. / ㄴ. 보기 싫었던 꽃병인데 깨뜨렸다.)³³⁾

(8가)는 결합된 후행절의 의미적 방향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상반되게 해석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화자가 값비싼 꽃병이 깨진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나 유감을 드러내는 감정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 다른 경우에는 화자가 보기 싫은 꽃병을 깨뜨린 결과로 심리적 부담을 해소와 함께 감정적 해방감을 경험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8가)와 동일한 상황에서 (8나)는 ‘버리다’가 개입되었다. ‘버리다’가 지닌 종결·비가역성을 전경화하는 구성적 특성은 (8가)에서 관찰되는 화자의 감정을 상대적으로 더 분명히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감정의 강화는 단순히 어휘 선택의 효과를 넘어, 문맥과 결합된 심리적 긴장·저항의 해소 방향과 관련될 수 있다. 이는 Talmy(2000)의 힘역학 이론에서 제시된 ‘내적 저항의 해소’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보기 싫었던 꽃병이 깨진 상황은 화자에게 부정적 심리 상태를 유발했으며, ‘깨 버렸다’는 표현은 그 부정적 감정이 소멸되거나 해소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나타낸다. 이때 ‘버리다’는 단순한 완료가 아니라, 감정적 에너지의 방향성과 해방을 표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보조용언 ‘버리다’는 화자의 감정을 새롭게 생성하기보다는 이미 내포된 감정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양태 의미를 수행함이 드러났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인지적으로 구성된 종결

33) 예문(8)은 성환갑·박선옥(2000)이 제시한 예문을 기반으로 하여, 후행절을 표면화한 형태로 재구성한 문장이다.

성과 같은 측면과 연동되어 화자의 심리적 반응을 언어적으로 실현시키는 방식과 관련된다. 즉, '버리다'의 감정 강화 효과는 그 동사의 완료성이나 종결성과 같은 기존의 어휘 의미에만 기반한다고 보기보다는, 인지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된 의미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버리다'의 양태 의미가 어떤 인지미론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구체적 탐구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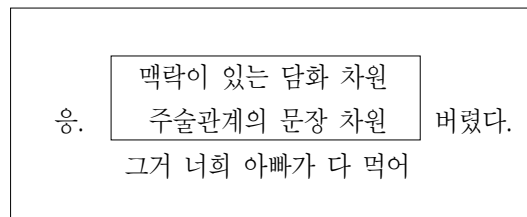
- (9) 가. 그 반지를 팔았다.
나. 그 반지를 팔아 버렸다.

앞선 예문들에서 확인한 '감정 강화' 기능이 어떠한 인지적 원리에서 기인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예문(9)를 통해 그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9가)는 과거 시제 어미인 '-았'만 사용된 문장이다. 반면, (9나)는 여기에 보조용언 '버리다'가 결합된 구조를 가진다. 두 문장은 형태는 유사하지만, 양태 의미를 실현하는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9가)에 비해 (9나)는 화자의 감정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이며, 감정적 효과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버리다'가 완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 완료를 내포함으로써, 결과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가역성 강조는 단순한 시제 표현에 그치지 않으며, 더 깊은 인지적 의미 생성 과정을 반영한다. 이철우(2018)는 '버리다'의 환유 과정을 중심으로 이를 고찰하였다.

- (10) 가. 엄마 수박 어디에 있어요?
나. 응, 그거 너희 아빠가 다 먹었어.
다. 응, 그거 너희 아빠가 다 먹어 버렸어.

이철우(2018 : 15)

이철우(2018)는 보조용언 ‘버리다’의 환유적 의미 형성 과정을 논의하면서, 그 속성을 ‘회귀 불가’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버리다’의 원형적 의미에서 출발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버리다’는 불필요한 대상을 내던지거나 제거하는 원형적 의미를 지닌다. 이로 인해 보조용언로 쓰인 ‘버리다’에는 결과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철우(2018)는 확인하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후행절이 제시되지 않은 (10나)와 (10다)는 ‘먹었다’만으로도 사건의 종결 의미가 충분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용언 ‘버리다’를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정을 부각하려는 표현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은 이철우(2018)가 제시한 도식으로 이를 통해 이러한 의미 구조를 살펴본다.



〈그림 1〉 보조용언 ‘버리다’의 담화 차원 기능

‘먹었다’는 행위의 완료 상태를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만, ‘버리다’가 결합됨으로써 해당 결과가 불가역성을 내포한다. 화자의 감정을 반영하는 입장에서 본고는 ‘버리다’가 화자의 감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이러한 ‘강화’ 개념은 본고의 독자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앞서 권순구(2006)에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는 보조용언 ‘버리다’의 양태 의미를 화자의 판단을 강화하는 장치로 분석하였다. 다음 예문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1) 가. 이슬이 아침해에 녹듯 아침이 되어 녹아 버리면 (ㄱ. 어찌나 겁을 냈죠. / ㄴ. 좋겠다.)

나. 김의원이 그 자료를 모두 윤희에게 주어 버렸다.

(ㄱ. 큰일이 났다. / ㄴ. 다행이었다.)

권순구(2006:14)³⁴⁾

권순구(2006)는 예문(11)을 통해 '버리다'가 후행절의 유형에 따라 부정적 의미로도, 긍정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고는 역시 '버리다'의 양태 의미가 문맥에 따라 상반된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권순구(2006)가 보조용언 '버리다'를 후행절의 선택에 따라 드러나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평가의 표현, 즉 '판단 강화'의 양태 기능으로 규정할 때 비해, 본고는 이 같은 해석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나아가 '버리다'가 문맥 속에서 화자의 감정을 전경화하고 심리적 에너지를 강화하는 '감정 강화'의 인지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함에 주목한다. 즉, 판단이라는 결과적 표상 뿐 아니라, 그 판단을 낳게 하는 감정적 과정과 감정의 강도 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버리다'의 양태 기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실제 언어 사용 사례에 적용하면, 보조용언 '버리다'가 어떻게 감정을 드러내고 강화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권순구(2006)가 언급한 예문(11)을 중심으로 '버리다'의 감정 표현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가) ㄱ에서 '어쩌나 겁을 냈죠'나 '큰일이 났다'와 같은 부정적 해석보다는, 전자는 '이슬이 아침해에 녹듯'이라는 은유적 표현과 '어쩌나'라는 감탄사의 사용을 통해, 단순한 불만이 아닌 이슬의 소멸에 대한 동정이나 우려의 감정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후자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전개를 묘사한 맥락 속에서 '좋겠다'라는 평가 표현이 사용된 점에서, 자연에 대한 감탄 또는 수용적 감정이 반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쪽 모두 '버리다'의

34) 예문(11)의 (가, 나)는 앞서 예문(3)에서도 제시한 바 있으며, 손세모들(1994)와 권순구(2006) 모두 해당 예문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두 선행 연구의 관점을 비교·비판하기 위해 동일 예문을 재차 인용하였다.

개입을 통해 후행절에 나타난 화자의 감정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특성은 ‘감정 강화’로 규정할 수 있다. 예문(11나)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ㄱ에서는 화자가 자료를 윤희에게 준 사실에 대해 우려의 감정을 나타내고, ㄴ에서는 동일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보조용언 ‘버리다’는 화자의 복합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방식에 기여하며, 이는 단순한 긍정·부정의 이분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버리다’는 고유한 감정적 함의를 지니기보다는, 문맥에서 드러난 감정적 함의를 확대·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감정 강화’의 양태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버리다’를 화자의 주관적 판단의 표시로 본 권순구(2006)의 해석과 맥락을 공유하면서도, 그 기능적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지금까지 보조용언 ‘버리다’의 양태 의미를 고찰한 결과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중립적·긍정적·부정적 의미 구분이나 판단 강화 중심의 해석에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신 화자의 감정을 전경화하고 심리적 강도를 강화하는 ‘감정 강화’라는 통합적 양태 의미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한국어의 ‘버리다’와 유사하게 화자의 감정을 수반하는 표현은 중국어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두 언어 간의 비교는 타당한 분석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중국어 결과보어 ‘掉’ 역시 동일한 양태 의미를 지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결과보어 ‘掉’의 양태 의미

결과보어 ‘掉’의 양태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 원형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한어사전(現代漢語詞典)』³⁵⁾에 따르면 ‘掉’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탈(離脫)·소실(消失)’로 정의된다.

35) 中國社會與科學院語言研究所, 『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出版, 2016.

- (12) 가. 頭髮掉了。 (머리카락이 빠졌다.)
 나. 錢包掉了。 (지갑을 잃어버렸다.)

(北京語言大學BCC語料庫)

예문(12가)에서는 머리카락이 부착된 상태에서의 이탈·탈락이 관찰된다. 이때 '掉'는 물리적 연결(부착)의 단절을 표지하며, 이는 '이탈(離脫)'이라는 원형 의미와 합치한다. 또한 (12나)에서는 화자의 소유물이 상실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두 예문은 공통적으로 물리적 연결(부착)의 단절을 통해 주체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역적 결과(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지시하며, 이는 중력·실수·외부 요인 등 힘의 작용으로 기존 상태가 해체되어 새로운 상태로 전환되는 동일한 인지 도식에 근거한다.

앞서 본 원형 의미를 바탕으로 '掉'는 실제 영역에서 사건·상태 영역으로의 재분석과 문법화를 거쳐 결과보어 기능을 확보하였고 여러 동사와의 결합 범위도 확대되었다. 曹晉(2009)은 통시적 관점에서 이 문법화 경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역사 단계	시기	'掉'의 용법	문법화 특징
상고 한어 (上古漢語)	선진~한대 (先秦~漢)	실질 동사로서 '흔들다'의 의미. 의미가 구체적이며 문법화되지 않음	동작성 강함, 문법화 이전
중고 한어 (中古漢語)	위진~당대 (魏晉~唐)	'v 掉' 구조에 사용되기 시작, 여순이 후치로 바뀌고 비의 지적 주어 등장	여순 변화, 보어화 경향 출현
근고 한어 (近古漢語)	송~청대 (宋~清)	'掉'가 결과 보어로 전화됨. '제거' 의미 동사와 자주 결합, 부정형 'v 不掉' 출현	의미 탈중심화, 구조 고정
근현대 한어 (近現代漢語)	민국 이후 (民國以後)	결과 보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용법이 안정되고 문법적 지위 확립됨	완전한 문법화, 기능 안정, 화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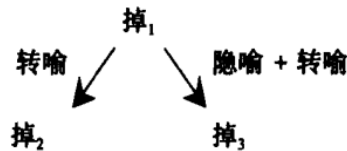
<표 1> '掉'의 문법화 경로

따라서 현대 중국어의 ‘V+ 掉(了)’의 핵심적인 기능은 행위 결과의 종점과 불가역성을 전경화하는 것이다. 이 기본 기능을 가장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문맥 정보가 없는 중립적 환경이다. 다음 예문으로 살펴본다.

- (13) 가. 我吃了。 (나 먹었다.)
나. 我吃掉了。 (나 먹어 버렸다.)

(北京語言大學BCC語料庫)

예문(13)은 중국어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이는 문장이다. (13가)에서는 완료 상을 표시하는 ‘了’를 사용하여 완료 결과를 드러낸다. 반면 (13나)에서는 ‘掉’가 결합함으로써 의미가 단순한 완료에 그치지 않고, ‘吃(먹다)’라는 행위가 초래한 결과의 종점 및 불가역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吃掉(먹어 버리다)’가 의미하는 바는 대상(음식)이 ‘소멸’의 힘에 제압되어 원래의 상태에서부터 이탈·소실로 귀결되는 결정적인 힘역학적 전환을 전경화함을 보여준다.



<그림 2> ‘掉’의 문법화 경로 및 동인

<그림 2>는 劉焱(2007)이 제시한 ‘掉’의 문법화 경로와 의미 동인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에 보이듯이, ‘掉’는 ‘객체 분리(課題分離)-객체 소실(客體消失) -행위의 종료·상태 전환(行爲終結·狀態轉換)’으로 전개된다. ‘掉₁’은 첫 단계로 ‘객체 분리’를 가리키며 이는 ‘掉’의 원래 의미이다. ‘掉₂’는 ‘객체 분리’가 환유를 통해 결과 중심으로 재해석되어 ‘객체 소실’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확장된 것이다. ‘掉₃’는 ‘객체 분리’가 은유를 거쳐 시간·상태 영역으로 투

사된 뒤 환유를 통해 '행위의 종료·상태 전환'을 표지하는 용법으로 발전하였고, 본고에서 논의하는 결과보어 '掉₃'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掉'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 결과보어로서 행위의 완료와 상태 전환을 표지한다. 이러한 전개는 결과의 종점을 전경화하여 담화 해석에서 화자의 평가 기준점을 더욱 가시화하는 방향의 변화를 동반한다 (Langacker 1990; 2008)³⁶. 이 관점에서 (13)을 보면, '了'만으로 완료는 표시되지만 '掉'는 그 종점의 불가역성을 전경화한다. 요컨대 '분리' 도식의 은유·환유적 재구성은 결과 종점(불가역성)의 전경화를 낳고, 이는 'V+掉(了)'가 완료 표지 이상으로 감정 강도를 높이는 인지적 근거다. (13)에서도 '掉'의 결합은 행위 결과의 종점과 불가역성을 전경화하여 화자의 감정적 개입 가능성이 표지된다. 다만 담화 정보가 미지정된 환경에서는 감정의 극성(긍정·부정)은 판별되지 않는다. 즉, 이는 '중립'이 아니라 '극성 미지정의 감정 강화'로 본다. 이어 (14)와 같은 최소 문맥이 주어지면 (13)에서 전경화된 강도는 감정의 극성으로 할당된다.

(14) 가. 今天英洙值日打掃。 (오늘은 영수가 청소 당번이다.)
但是, 英洙已經走了。 (그런데 영수는 벌써 집에 갔다.)

나. 今天英洙值日打掃。 (오늘은 영수가 청소 당번이다.)
但是, 英洙已經走掉了。 (그런데 영수는 벌써 집에 가 버렸다.)³⁷

(14)는 '今天英洙值日打掃(오늘은 영수가 청소 당번이다)'라는 정보 뒤에 영수가 집에 가 버렸다는 맥락이 이어지며, 화자가 '답답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예문이다. '掉'는 행위의 완료, 곧 종점의 불가역성을 전경화한

36) Langacker, Ronald W, 「Subjectification」, 『Cognitive Linguistics』 제1권, Mouton de Gruyter, 1990. pp5-38.

Langacker, Ronald W,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37) 예문(14)는 이철우(2018)에서 제시한 한국어 예문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다. 그 결과 (14가)에 비해 (14나)에서는 감정 강도가 한층 높아진다. 특히 ‘走掉(가 버렸다)’는 ‘당번으로서 머물러야 한다’는 제약을 넘어 ‘떠나다’라는 행위자의 힘이 최종적으로 우세해진 상태, 즉 힘역학적 종결 국면을 부각함으로써 화자의 답답함을 강화한다. 다음 예문(15)에서 동일한 ‘V+ 掉’ 구문이 상반된 감정 극성 하에서도 강도 증폭 기능을 수행함을 검토한다.

(15) 가. 老鄭騙我，害我把指甲(油)洗掉了。

(라오정이 나를 속여서 매니큐어를 지워버렸어.)

나. 我覺得太張揚，輕浮，最后給洗掉了。

(너무 튀고 가벼워 보여서, 결국 매니큐어를 지워버렸어.)

(北京語言大學BCC語料庫)

(15)에서는 동일한 ‘V+ 掉(了)’를 유지한 채 선행절에 따라 감정의 극성은 문맥이 결정되며 ‘掉’는 강도만을 증폭함이 확인된다. (15가)에서 ‘老鄭騙我(라오정이 나를 속였어)’ 때문에 좋아하던 매니큐어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화자의 아쉬움·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洗掉了(지워버렸다)’라는 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회복 불가능하므로 화자의 부정적 감정이 더욱 강화된다. (15나)에서 ‘我覺得太張揚(너무 튀고 가벼워 보여)’ 때문에 결국 없애게 되었다. 이는 화자가 자발적으로 제거한 것이므로, 제거 이후의 시원함 등 긍정적 감정이 문맥에서 유도되며, ‘掉’의 결합은 이러한 감정을 한층 강화한다. ‘洗掉了(지워버렸어)’라는 표현은 물리적·화학적 힘의 작용으로 대상(매니큐어)의 부착 상태가 단절되는 불가역적 결과를 표지한다. ‘掉’는 이 결과의 종점의 불가역성을 전경화함으로써, 그 결과에 수반되는 화자의 감정(긍정·부정을 막론하고)의 강도 증폭 기능을 수행한다.

(16) 我把指甲(油)洗掉了，(ㄱ. 終於清爽了。ㄴ. 有点可惜。)

(나는 매니큐어를 지워 버렸어, (ㄱ. 드디어 상쾌하다. / ㄴ. 좀 아쉽다.)

(15)의 관찰을 확장하여, (16)에서는 동일한 'V+ 掉了'를 유지하되 후행절이 제공하는 담화 단서에 의해 감정 해석의 지향과 질이 결정되며, '掉'의 결합은 불가역성의 전경화로 감정 강도의 증폭이 확인된다. 이는 앞서 제시한 힘역학 관점에 따르면, 행위자가 제약을 넘어 분리·소실의 안정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이 전경화된다는 점을 축약 적용한 것이다. 예문(16)에서 선행절인 '我把指甲(油)洗掉了(나는 매니큐어를 지워 버렸다)'는 문맥에 따라 상반된 화자의 감정으로 해석된다. (一)은 '부담 제거'와 같은 긍정적 감정을, (二)은 어쩔 수 없이 제거된 손톱에 대한 '후회'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다.

요컨대 (13)–(16)은 '掉'가 강도 증폭자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부정적 태도 표지로 해석돼 온 (17)의 '死/死掉' 대조를 다시 살펴, '掉'의 기여가 완료 표지가 아니라 불가역적 종점의 전경화와 태도 가시화에 있음을 보인다.

(17) 가. 等救護車趕到, 人已經死了。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 等救護車趕到, 人已經死掉了。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사람은 이미 죽어 버렸어요.)

(평교교 2023:50)

(17가)는 문말 '了'를 통해 사건의 완료를 표지하며 문장을 종결한다. (17나)는 동사 뒤에 '掉'가 결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완료 표시의 측면에서는 (17가)와 큰 차이가 없다. 차이는 완료 여부가 아니라 '종점-불가역성'의 전경화 정도에 있다. 평교교(2023)는 예문 (17가)와 (17나)를 비교하여, (17나)에서 '掉'가 화자의 '기대의 어긋남'이라는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즉, 화자가 '사람이 죽지 않기를 바랐으나 결국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가 예상이나 기대와는 반대 방향으로 실현되었기에 화자의 아쉬움이 표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고는 화자의 부정적 감정이 '掉' 자체에 의해 표지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 정보에 의한 추론을 통해 도출된다고 본다. 예문(17)에서 ‘等 救護車(구급차를 기다리다)’라는 선행절을 통해 환자를 구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환자가 죽었다면, 화자가 ‘마음이 아프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기대에 반하는 부정적 감정은 ‘掉’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파악되는 것이다. ‘掉’는 단지 이러한 문맥적 감정이 존재할 때, 감정 강도만을 한층 증폭하는 역할에 그친다. 이와 같이 ‘掉’의 의미가 실제 영역에서 사건·상태 영역을 거쳐 양태 영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인지언어학의 주관화가 활발히 작동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掉’의 양태 의미는 문맥에 의해 결정되는 감정의 극성과 무관하게 그 강도를 증폭시키는 ‘감정 강화’이다. 이는 고도의 주관화가 빚어 낸 결과이며, ‘掉’가 내포하는 ‘불가역적 종점’의 의미가 ‘힘역학’의 관점에서 전경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3) 보조용언 ‘버리다’와 결과보어 ‘掉’ 양태 의미의 대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보조용언 ‘버리다’와 중국어 결과보어 ‘掉’은 공통적으로 화자의 감정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두 표현은 감정이 언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18) 가. 그 파일을 지웠다.

나. 그 파일을 지워 버렸다.

다. 我把那份文件刪了。(그 파일을 지웠다.)

(北京語言大學BCC語料庫)

라. 我把那份文件刪掉了。(그 파일을 지워 버렸다.)

(北京語言大學BCC語料庫)

예문(18)은 두 언어에서 해당 표지의 유무를 대조한다. (가)와 (나)는 '버리다'의 유무를, (다)와 (라)는 '掉'의 유무를 보인다. (나)는 (가)에 비해 '버리다'가 결합하면서 사건의 결과와 화자 감정이 표면화되며 감정 강화가 보다 명확해진다. 반면 (라)는 (다)에 비해 '掉'의 결합으로 이미 달성된 결과·불가역성이 명시적으로 강조되어 감정 강화의 신호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무맥락 조건에서는 구체적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도하지 못해 감정 강화가 표면에서 약한 수준에 머문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최소 부정 문맥을 도입하여 두 표지의 감정 강화 증대 폭을 검증한다.

(19) 가. 실수로 그 파일을 지웠다.

나. 실수로 그 파일을 지워 버렸다.

다. 我不小心把那份文件删了。(실수로 그 파일을 지웠다.)

라. 我不小心把那份文件删掉了。(실수로 그 파일을 지워 버렸다.)

예문(18)을 바탕으로 최소 문맥을 추가하면 네 문장은 모두 부정적 감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한국어 예문에는 '실수로'가, 중국어 예문에는 '不小心(실수로)'이 결합한다. 각 언어의 기준문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 '버리다'는 이미 달성된 결과와 화자 감정 표면화를 한층 강화한다. 중국어 '掉' 역시 일정한 증대가 관찰되지만, 그 효과는 주로 이미 달성된 결과·불가역성의 강조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한국어 (나)가 (가)에 비해 보이는 감정 강화의 증대 폭이 중국어 (라)가 (다)에 비해 보이는 증대 폭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20) 가. 주말에 일주일 동안 모은 빨래를 다 해버렸어요.

周末把攒了一周的脏衣服都洗掉了。 평교교 (2023:50)

나. 변호사님을 그렇게 빨리 처리해 버리실 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沒想到律師那麼快就被處理掉了，我也沒想到。

(〈사랑의 불시착〉, 2019 제9회)

예문(20가)는 ‘주말에 일주일 동안 모았다’라는 문맥을 통해 화자의 긍정적 감정 방향이 형성된다. 여기에 ‘버리다’가 결합하며 사건의 결과와 화자 감정 간의 연결이 표면화되고, 긍정적 감정의 강도가 한층 높아진다. 대응하는 중국어 번역에서는 ‘攢了一周(일주일 동안 모은...)’라는 문맥 정보가 긍정 평가를 유발하지만, ‘掉’의 기능은 주로 완결성과 불가역성 강조에 기여하므로 감정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掉’가 문법화 과정에서 ‘버리다’에 비해 주관화 수준이 낮으며, 두 표지의 기본 의미 구조 차이가 감정 강도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20나)는 부정적 문맥이 내포된 예문이다. ‘...하실 줄은 못해 가지고’가 예상 위배와 아쉬움을 표지하며 ‘버리다’는 이러한 주관적 입장을 문장 표면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중국어 번역에서의 부정적 해석은 주로 ‘我也沒想到(생각을 못하다)’ 및 피동 구문이 담당하며, ‘掉’는 여전히 완결성·불가역성의 강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감정 강화의 정도가 한국어 형식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4. 결론

본고는 인지 의미론적 관점에서 한국어 보조용언 ‘버리다’와 중국어 결과보어 ‘掉’의 양태 의미를 ‘감정 강화’라는 공통 분석틀로 삼아 대조하였다. 선행 연구는 주로 두 표현의 상 의미나 개별적 의미 기술에 초점을 두어 화자의 감정적 태도와 연관성 및 한·중 대조의 관점에서 이를 충분히 체계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지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분석 관점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버리다’와 ‘掉’

에 대한 선행 및 대조 연구의 쟁점을 정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두 표현의 양태 의미를 본격적으로 대조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버리다'와 '掉' 모두에서 감정의 극성(긍정·부정) 그 자체라기보다 감정 강도의 전경화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며, 극성은 담화 맥락에 의해 부여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부터 두 표현의 양태 의미는 극성을 직접 표지하는 형식이 아니라 감정 강도를 부각하고 극성은 담화적 단서에 따라 결정되는 공통 메커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버리다'는 보조용언으로서 높은 문법화 수준과 주관화 정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감정 강화 효과와 낮은 문맥 의존성을 보이는 반면, '掉'는 결과 보여로서 사건 결과의 실현을 부각하면서도 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주변 담화 단서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는 두 표현이 단순히 '제거/완결'이나 '부정적 감정'을 표지하는 형식이 아니라, 공통된 인지 기제 위에서 상이한 양태적 프로파일을 지니는 감정 강화 자원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기존의 상 의미 중심이나 개별 의미 기술에 머물던 접근을 넘어, '버리다'와 '掉'의 감정 양태 기능을 단일한 인지의미론적 틀 속에서 대조함으로써 한·중 감정 표현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본고의 논의는 전형적 예문과 제한된 말뭉치 자료에 기반한 질적 분석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충분한 빈도 자료와 통계적 검증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말뭉치 기반의 정량 분석과 실제 사용 자료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병행함으로써, 본고에서 제안한 감정 강화 메커니즘과 한·중 대조 결과의 일반성과 신뢰성을 보다 엄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1. 서적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 남기심·고영근·유현경,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9.
- 中国社会与科学院语言研究所, 『现代汉语词典』, 北京: 商务印书馆, 2016.
- Talmy, Leonard,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Cambridge, MA: MIT Press, 2000.
- Langacker, Ronald W,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1983.
-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1980.
- 王力, 『中国现代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1943.
- 吴福祥, 『试论现代汉语动补结构的来源』,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9.

2. 논문류

- Langacker, Ronald W, 「Subjectification」, 『Cognitive Linguistics』 제1권, Mouton de Gruyter, 1990.
- Jing, Gaowa·Liu, MeiChun, 「The Multifunctionality of Mandarin Diào 掉」, 『Chinese Language and Discourse』 제14권 제1호,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23.
- 전원홍, 「논문(論文): 한어(韓語) ‘V+ 버리다’여(與)한어(漢語) ‘V+ 도(掉)’적(的) 비교((比較))」, 『中國學論叢』 제39권, 중국학연구소, 2013.
- 이명화, 「한국어 ‘-어 버리다’와 중국어 ‘掉’의 대조 연구」, 『동아인문학』 제18권, 동아인문학회, 2010.
- 한경숙, 「중국어 V+掉, A+掉 구조 중 결과보어 掉的 상 자질 중한 대조연구」, 『

- 東洋學』 제111권, 東洋學研究院, 2019.
- 심상도, 「補助動詞의 樣態의 意味」, 『明知語文學』 제21권, 명지어문학회, 1994.
- 손세모돌, 「보조 용언의 의미에 관한 연구-두다/놓다, 버리다, 내다를 중심으로-」, 『한글』 제223권, 한글학회, 1994.
- 평교교, 「한국어 종결상 보조동사와 중국어 대응 표현 대조 연구: '버리다', '치우다', '내다」,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2023.
- 장미라, 「한국어 보조 용언의 상적, 양태적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 -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 말다, 치우를 중심으로-」, 『배달말』 제38권, 배달말학회, 2006.
- 조미희, 「국어 보조동사 의미의 주관화: '-어 놓다, -어 두다', '-어 버리다, -어 치우다' 쌍을 중심으로」, 『형태론』 제15권, 도서출판 박이정, 2013.
- 이금희, 「감정양태 설정과 감정양태 표현 양상-보조용언 구성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제1권, 담화-인지언어학회, 2021.
- 이철우, 「보조용언 '버리다'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해석」, 『人文研究』 제84권, 인문과학연구소, 2018.
- 권순구, 「보조용언 '버리다'의 양태 의미」, 『어문연구』 제51권, 어문연구학회, 2006.
- 성환갑·박선옥, 「國語 補助動詞의 意味 研究: '-어 가다/오다/내다/버리다'를 대상으로」, 『人文學研究』 제30권, 인문과학연구, 2000.
- 박선옥, 「補助動詞 '버리다'와 '치우다'가 쓰인 구문에 대한 統詞論的·意味論的 연구」, 『어문연구』 제34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 안신혜, 「보조용언의 문법화 양상 -가다, 오다, 두다, 버리다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56권, 겨레어문학회, 2016
- 刘焱, 「'掉'的语义类型与'掉'的虚化」, 『中国语文』 第2期, 2007.
- 朴奎容, 「谈'V 掉'中'掉'的意义」, 『汉语学习』 第5期, 2000.
- 沈家煊, 「'转指和转喻」, 『当代语言学』 第1期, 1999.
- 曹晋, 「'V掉'的语法化」, 『黔南民族师范学院学报』 第2期, 2009.
- 谢翠凤, 「现代汉语补语 '掉'研究」, 上海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8.

Abstract

A Cognitive-Semantic Contrastive Analysis of the Aspectual Meanings of '버리다' and Chinese '掉'

Gao Ying

This study conducts a contrastive analysis of the modal meanings expressed by the Korean auxiliary verb '버리다' and the Chinese resultative complement '掉' within a shared cognitive-semantic framework of emotional intensification.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preceding studies, it identifies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neutral interpretations and binary (affirmative/negative) approaches that have not fully accounted for their affect-related functions. From a cognitive-semantic perspective, the modal meaning of '버리다' is redefined as a device that emphasizes the speaker's affective stance, foregrounding the intensity of emotion rather than directly encoding its polarity.

Building on this perspective, the study analyzes '掉', which shares structural and functional similarities with '버리다', in terms of a common underlying cognitive mechanism observed in both Korean and Chinese.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both expressions function as resources of emotional intensification, '버리다' exhibits a higher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and a more salient, relatively less context-dependent expression of the speaker's subjective attitude, whereas '掉' shows stronger dependence on surrounding discourse and realizes emotional intensification in a comparatively weaker manner. By situating both forms within a unified cognitive-semantic mechanism rather than treating them merely as markers of completion, removal, or negative emotion, the study illuminates both the universal and language-specific aspects of emotional expression in Korean and Chinese.

Key words : Auxiliary Verb '버리다', Resultative Complement '掉', Cognitive Semantics, Emotional Intensification, Contrastive Analysis

투고일 : 2025. 10. 10. / 심사일 : 2025. 10. 15.~ 2025. 11. 15. / 게재확정일 : 2025. 11. 20.